전남대 등 7개 권역 총장협의회 열려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

1일 전남대에 따르면 이날 광주·전남 회장대학인 전남대학교를 비롯해, 강원권역 강릉원주대, 대구·경북권역 경일대, 대전·세종·충남권역 우송대, 부산·울산·경남·제주권역 창신대, 전북권역 전주대, 충북권역 중원대 등 7개 권역별 회장대학이 참석했다. 권역별 전임 회장교였던 조선대와 대구한의대, 부산대, 한국교원대도 함께했다.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는 지방대학 위기를 알리기 위해 비수도권 7개 권역별 대학이 연합한 협의체다.

올해 첫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대학균형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포괄적인 고등교육 현안을 다뤘다면,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에서는 비수도권 대학 현실을 반영해 보다 깊이있고 세부적인 지역 고등교육 현안을 논의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비수도권 대학의 정원미달이 심화된 만큼, 지방소멸에 대비하는 대학별 해법과 발전방안은 올해도 주요한 쟁점이 됐다. **노병하 기자**

NH농협은행 영암군지부, 사랑의 쌀 나눔

NH농협은행 영암군지부(지부장 임정빈)는 지난달 31일 쌀 소비감소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돕기위해 영암군청(군수 우승희)에서 '사랑의 쌀' 280포(10㎏·700만원 상당) 전달행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영암군수와 농협 영암군지부장, 영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공동모금회에 농협 쌀이 전달됐다.

전달된 쌀은 지역자활센터에 지원될 예정이다.

임정빈 지부장은 "쌀 나눔 행사가 농업인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화순전남대병원-천주교광주대교구 협약

화순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용연)과 천주교광주대교구(교구장 옥현진 대주교)는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 서구 천주교광주대교구청 1층 회의실에서 '소외된 이웃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1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취약계층 환자의 건강 회복과 행복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환자에 대해 상담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천주교광주대교구가 지원 업무에 협조하기로 했다. 또 양 기관은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 상호간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천주교광주대교구 산하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는 광주·전남지역에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어린이집,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이주민복지 등의 사회복지시설 50곳을 운영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화순교육지원청, 영재 비전캠프 입학식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현희)은 지난달 30일 '서울대생과 함께하는 화순영재교육원 비전캠프' 입학식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

화순영재교육원 중등 신입생과 관내 희망 중학생 48명이 참여하는 이 프로그램은 3일까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찾아가는 교육활동 16기' 학생 35명과 함께 멘토링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비전캠프는 △모여봐요 법률의 숲(법) △NONE리 아일랜드(논리) △미리캠퍼스(미디어 리터러시) △맘S터치(심리) 등 서울대 해당 학생들이 개발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1:2 멘토-멘티 맞춤형 밀착 지도 방식으로 진행돼 학생들의 진로 결정 및 학습 동기·학업 역량 강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희 교육장은 "서울대 멘토들의 눈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큰 꿈을 키우기 바란다"며 "미래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확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동강대 간호학과 김민정 씨 교육부장관상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에 알찬 결실을 맺고 있다.

1일 동강대학교에 따르면 국제교류원(원장 허숙)은 최근 본관 총장실에서 '전문대학 글로벌현장학습' 모범학생 부문 교육부장관 상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상자인 간호학과 김민정(2년·오른쪽)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12월4일까지 16주간 호주 Macquarie Education Group Australia에서 어학 교육과 Chatswood Med Centre에서 현장 실습에 참여했다. 연수기간 호주 병원 현장실습을 통해 외국어 실력뿐 아니라 전공 실무능력을 길렀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글로벌 역량 강화의 공로를 인정받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동강대는 지난해에도 호텔항공관광과 18학번 양하은 씨가 '2021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공모전' 체험수기 분야에서 '일본에 푹 빠지자'라는 주제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장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노병하 기자**

조선대, 몽골 예비 유학생 대상 문화체험

몽골 어요니 이레뒤 고등학교 학생들이 조선대를 찾았다. 이들은 한국 음식 만들기부터 양림동, 아시아문화전당 등을 방문, 문화탐방을 통해 광주만의 색깔을 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1일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에 따르면 지난달 10박11일간 몽골 어요니 이레뒤학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수준에 맞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한국어교육'과 한국 문화를 배우는 '한국문화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예비 유학생들에게 한국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매학교와 긴밀한 우호 교류 유지·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한국어 교육은 기초반과 중급반으로 나누어 운영됐으며, 국립광주과학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광주의 명소를 방문하는 문화 탐방을 했다. 이밖에 조선대학교 캠퍼스 투어, 한국 음식 만들기, 태권도, 향수 만들기, 영화 관람, 충장로 투어, 양림동 투어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진행했다. **노병하 기자**

송몽규·안창남·김필순 선생, 2월의 독립운동가 선정

송몽규

안창남

김필순

국가보훈처가 '2월의 독립운동가'와 '2월의 6·25전쟁영웅'에 송몽규·안창남·김필순 선생과 최종성 공군 중위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1일 전남서부보훈지청에 따르면 송몽규 선생은 윤동주 시인과 함께 문학을 통해 자주독립을 위한 민족계몽운동을 펼쳤으며 28세에 옥사했다.

안창남 선생은 조선인 최초 3등 비행사를 취득해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하며 항공사령관으로 활동했다. 비행훈련 중 기체 고장으로 29세에 산화했다.

김필순 선생은 세브란스병원의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신민회에 참여했다가 만주로 망명, 병원을 개원해 독립운동가들과 이주 조선인들을 치료하며 독립운동기지 건설에 노력했다.

정부는 송몽규 선생은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 안창남 선생은 2001년 건국훈장 애국장, 김필순 선생엔 1997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각각 추서했다.

'2월의 6·25 전쟁영웅'에는 최종성 공군중위가 선정됐다. 6·25전쟁 당시 적 보급로 차단 등 전공을 세우고 강원도 원산 남쪽 안변 지역으로 출격했다가 적 지상화기 공격으로 전사했다. 유해는 서울 현충원에 안장 됐고 정부는 그의 전공을 기려 1계급 특진(소위→중위)을 추서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2월의 5·18 민주유공자 故 박재구 열사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소는 2월의 5·18민주유공자로 고(故) 박재구 열사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1980년 5월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와 함께 버스와 장갑차를 타고 나주 등지에서 무기를 탈취한뒤 광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잠복중이던 계엄군에게 붙들려 폭행을 당했다.

이후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다 지난 1984년 숨졌고 현재 국립 5·18민주묘지 제1묘역에 안자돼 있다.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관계자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는 5·18민주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재조명하여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대내외에 홍보하고자 매달 이달의 5·18민주유공자를 선정하고 있다. **정성현 기자**

전남 사랑의열매, 사랑의 온도탑 '105.1도'로 성료

전남의 연말연시 이웃돕기 모금실적을 나타내는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돌파하면서 '희망2023나눔캠페인'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진)

1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노동일, 이하 전남 사랑의열매)는 '희망2023나눔캠페인'이 104억2500여만원을 모금하서며 사랑의 온도탑 105.1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희망2023나눔캠페인'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전남' 슬로건 아래 전개됐다.

이날 오전 전남도청 인근 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앞에서 열린 '희망2023나눔캠페인' 폐막식에는 노동일 전남 사랑의열매 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62일간 모금 대장정의 마무리를 알렸다.

전남 사랑의열매는 지난 '희망2021나눔캠페인' 당시 103억원을 모금하며 전남도 나눔액 100억원을 돌파한 이후, 올해도 104억원을 모금해 3년 연속 100억원대 모금액을 달성했다.

노동일 전남 사랑의열매 회장은 "날씨도, 경제 상황도 꽁꽁 얼어붙은 힘든 시기임에도 이웃을 떠올리며 나눔에 동참해주신 전남도민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보내주신 성금은 도민에게 힘이 되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 수 있도록 복지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희망2023나눔캠페인' 기간 모금된 104억2500여만원의 성금은 △코로나19 일상 회복 지원 △위기가정 의료비·생계비 지원 △주거 취약 가구 주택 개보수 및 신축주택 지원 △아동·청소년 돌봄 및 교육지원 등으로 빈곤·소외·질병 없는 전남도를 만들기 위한 복지사업비로 사용된다. **강주비 기자**

인사

통계청 ◇과장급 △호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장 강영민 △호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이동근 △호남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장 백순미 △호남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장 김인식 △호남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장 명노섭